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40 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

2025년 05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유럽지역 기업의 주식 관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재간접형 증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식모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Pan European Fund (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5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955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19억 원

펀드유형 혼합채권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주식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편입비 :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6년 04월 25일)

- 클래스 C-E : 2016년 04월 28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6년 06월 21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04월 03일

벤치마크 MSCI Europe Index 35%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88.5%**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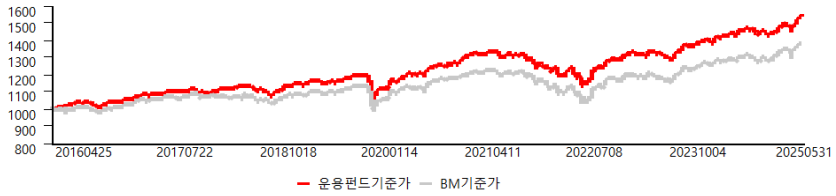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2.50%	4.17%	6.71%	8.85%	17.23%	23.44%	34.32%	53.48%
클래스 C-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P(퇴직연금)	2.42%	3.90%	6.17%	7.75%	14.85%	19.69%	27.60%	39.67%
클래스 C-P(퇴직연금)E	2.44%	3.99%	6.34%	8.11%	15.63%	20.91%	29.77%	32.21%
벤치마크	1.29%	3.17%	6.93%	8.18%	16.67%	20.24%	27.46%	3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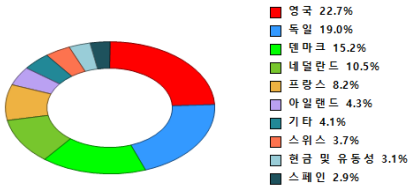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5월말 기준)

<전체>

<국가별> - 피투자펀드 기준



<주식 업종별> - 피투자펀드 기준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5월말, 피투자펀드 주식비중)

종목명	비중(%)
AIB GROUP PLC	4.6
SCOUT24 SE	4.4
CTS EVENTIM AG & CO KGAA	4.3
SCHNEIDER ELECTRIC SE	4.2
SAP SE	3.9
ING GROEP NV	3.9
RELX PLC	3.6
UNILEVER PLC	3.5
DSV A/S	3.4
NOVO NORDISK A/S	3.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40 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

2025년 05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E : 총 연 0.792% (판매 0.45%)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03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692%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282%, 신탁 0.04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7% 이내
- 클래스A-E: 납입금액의 0.35% 이내
- 클래스C/C-E/C-P2(연금저축):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5월 유럽 증시는 상승하였습니다.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위협으로 일시적인 매도세가 있었으나, 협상 마감일이 7월 9일로 연기되며 증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갈등 완화 기대와 미중 간 관세 인하 합의는 글로벌 증시, 특히 유럽증시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유로지역의 경제지표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방위산업 섹터 강세도 상승을 지지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 금융, 산업재 부문이 강세를 보였으나, 헬스케어 부문은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5월 유로존 CPI는 전년동월대비 1.9%(전월 2.2%)로 집계되었으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는 있으나, 수요 둔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3% 성장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하였다가 이를 7월 9일까지 유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연내 강한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ECB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독일의 재정 부양책, 그리고 낮은 대미 의존도는 유로존의 상대적 안정성 확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유럽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영국의 금리 동결 기조 역시 유럽증시상승을 제한하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1분기 GDP와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며, 5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기에 6월에는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6월 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럽증시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유로존의 실업률이 예측치를 상회한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를 높이며, 유럽증시의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에 탄탄한 펀더멘털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에 장기간 투자하고자 하며, 심층적인 리서치에 기반한 상향식 투자접근법을 사용하여 종목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빠른 실적, 판매 증가가 아닌, 희소가치를 보유하거나 시장 내 경쟁기업들 대비 더 높은 경쟁력과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 성장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6월 금리는 ① 미국 관세 정책 변화 ② 6월 FOMC 연준 스탠스 ③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및 국채 물량 부담 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준은 명확한 인하 시그널 없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QT 중단 기대는 유효하나, 인하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국은행의 완화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연준의 속도 조절은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도 부담 요인이 됩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추경 규모 및 시기, 미 관세 협상 전개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대선 이후 재정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 추경 및 예산안 발표 전후로 수급 부담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부담 이슈가 지속되어 수급상 약세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6월 금리는 완화정책 기대가 하단을 지지하고, 수급 및 대외 요인이 상단을 제한하는 구조 속에서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3년 2.20~2.45% 전망, 국고10년 2.65~2.95% 전망하며, 듀레이션은 중립 수준 운용하고, 변동성으로 금리 레인지 상단 접근 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